

	제목	히잡을 벗고 나는 평화를 선택했다
	발행언어	한국어 번역본 (Iran Awakening)
	발행처	황금나침반
	발행일	2007. 6. 28.
	저자	시린 에바디, 아자데 모아베니 황지현 옮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317
	ISBN 또는 ISSN	978-8992483117

#### 내용 요약

이슬람 최초의 여성 노벨평화상 수상, 시린 에바디의 자서전, 『히잡을 벗고 나는 평화를 선택했다』는 검은 히잡을 쓴 여성인권운동가인 저자의 자서전으로, 혁명과 전쟁, 억압과 투쟁으로 얼룩진 이란의 현대사를 헤치며 여성과 아동의 인권수호를 위해 노력해온 그녀의 삶과 사상이 그대로 녹아있다.

1947년 이란에서 태어난 ‘시린’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 근대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다른 여자 아이와 달리 자존감과 평등의식을 키우며 성장했다. 그 후, 테헤란 대학교 법과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하고, 1970년 23세라는 나이에 이란 최초의 여성 판사가 되었다. 그러나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후, 여성은 감정적이며 법집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1980년 판사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책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잔인한 역사에 맞선 저자의 혁명과 희망의 회고록이다. 지속적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다음 세대의 딸들을 위해 무자비한 남성 중심의 체제에 의해 짓밟힌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분투하는 저자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아냈다. 아울러 희망을 발견해내고, 평화와 인권과 평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